

##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야 했던 이유(딤후 2:1-7)

### ● 믿음의 선한 싸움의 무기

- “믿음과 착한 양심”
- “간구와 기도와 도고(중보)와 감사”

### ● 로마교회 감독 클레멘트(AD 101 사망)의 기도문

… 당신의 눈과 통치자들의 눈에 흡족할 만한 일들을 하게하소서. … 또 우리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소서. … 또 우리를 다스리는 지구상의 통치자들과 지배자들에게도 일치와 평화를 주소서.

###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했던 이유(딤후 2:1-4)

● 로마 황제들은 자칭 ‘구주,’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 ‘주와 하나님’이었다.

● 반면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와 같이 믿었기 때문에 황제숭배나, 그리스도숭배나를 놓고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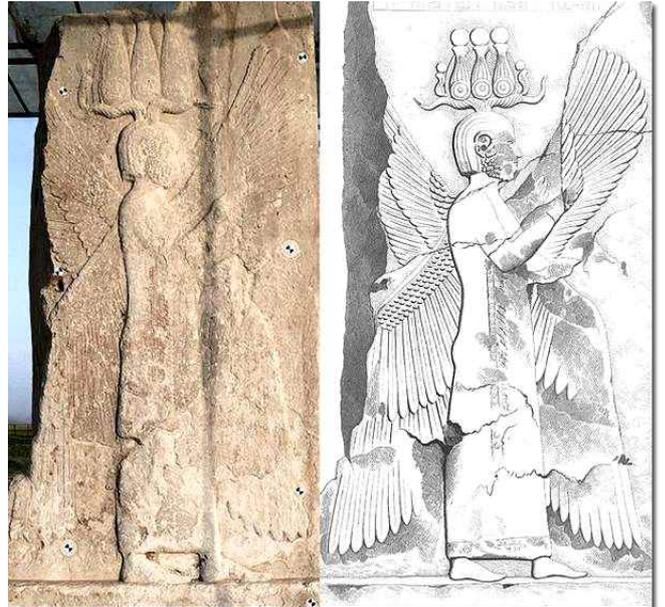
● AD 64-305년 사이에 황제숭배를 우상숭배로 알고 이를 거부한 로마제국 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 AD 1801-1879년 사이에 순교한 조선시대 가톨릭 신자의 숫자가 1만여 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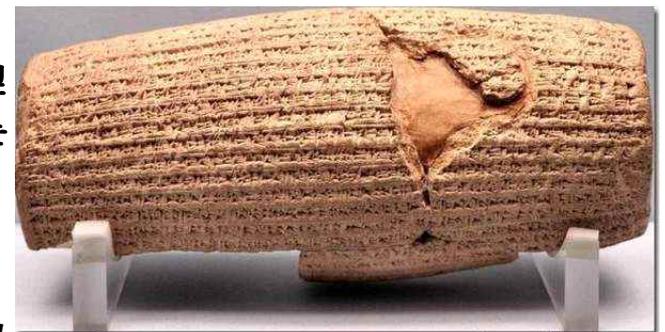
● 일제강점기 때 천황숭배를 거부했던 조선 그리스도인 50여 명이 같은 이유로 순교하였다.

● 그러나 만일 황제와 황실의 유력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상황이 확 바뀔 수 있었다.

●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구원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란 파사르가다에(Pasargadae)의 키루스 대제의 부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은 키루스에 대해서 “사한샤(Shahanshah, 왕중의 왕), 페르시아 국민의 아버지, 이상적인 군주, 바빌로니아 유대인들의 해방자.”라고 기술하였다. 날개가 세 쌍인 것은 그가 페르시아 대국의 수호신이란 뜻이다.



키루스 2세(고레스, Cyrus, 559-529 BC) 황제의 실물인데 이 실물에는 바빌로니아 에사길라(Esagila) 신전에서 발견되었다. 이 실물에는 길이 23cm, 지름 10cm 크기로써 여러 민족에게 종교와 주권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쇠기문자로 쓰여 있다.  
“... 나는 오랫동안 폐허가 된 티그리스 반대편에 있는 이 성스러운 도시들로 신상들을 되돌려 보냈다. 그곳에 그 신상들이 있었고, 그 신상들을 위해 항구적인 성소들이 세워졌던 곳들이다. 또 나는 그 성소된 도시들에 거주했었던 주민들을 모았고,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을 그 도시들로 되돌려 보냈다. 나는 신들의 위대한 주이신 마르둑(Marduk)의 명령에 따라, 신들의 주의 분노로 인해서 나보니두스(Nabonidus)가 바빌로니아로 가져온 수메르(Sumer)와 아카드(Akkad)의 모든 신들을 그 신들로 되돌려 보냈고, 그 신들의 이전 신전들에 손상됨이 없이 다시 안착시켰다. 부디 내가 신성한 도시들에 안착시킨 신들이 벨(Bel)과 네보(Nebo)에게 내가 장수하게 해달라고 매일 빌어주기를 바라며, 또 그들이 나의 주이신 마르둑에게 내가 호감을 얻도록 말려 주기를 바란다.”  
<Edict of Cyrus, 538 BC>.

### \*\*\* 사례 \*\*\*

● 역대기하 36장 22절과 에스라 1장 1절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적고 있다. 이는 유대인들의 끈질긴 기도가 성취되었음을 적은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루스 대제는 실제로 주전 538년에 다음 같은 칙령을 발표하였다.

● ... 나는 오랫동안 폐허가 된 티그리스 반대편에 있는 이 성스러운 도시들로 신상들을 되돌려 보냈다. 그곳에 그 신상들은 있었고, 그 신상들을 위해 항구적인 성소들이 세워졌던 곳들이다. 또 나는 그 성스런 도시들에 거주했었던

주민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의 거주민들을 그 도시들로 되돌려 보냈다. 나는 신들의 위대한 주(主)이신 마르дук(Marduk)의 명령에 따라, 신들의 주의 분노로 인해서 나보니두스(Nabonidus, 아들 벨사살과 공동섭정, 539 BC 키투스에게 항복)가 바빌론으로 가져온 수메르(Sumer)와 아카드(Akkad)의 모든 신들을 그 신들을 복되게 했던 장소들 곧 그 신들의 이전 신전들에 손상됨이 없이 다시 안착시켰다. 부디 내가 신성한 도시들에 안착시킨 모든 신들이 벨(Bel, 수메르의 주신)과 네보(Nebo, 느보) 신들에게 내가 장수케 해달라고 매일 빌어주기를 바라며, 또 그들이 나의 주이신 마르дук에게 내가 호감을 얻도록 좋게 말해 주기를 바란다.” (비교: 벨-마르дук, 엘-야훼, 아몬-제우스)

●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역시 주후 212년 로마황제 카라칼라의 안토니누스 칙령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시민권자들이 되었다.

● AD 313년 로마제국에서 박해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였다.

● 기도의 힘은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도 이끌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정제 콘스탄티누스와 정제 리키니우스는 ... 모든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오늘부터 기독교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는다.... <지령>... 지금까지 그것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당한 기도처의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에서 사들여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AD 313년 6월 밀라노에서 로마의 두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공포.



2017년 독일에서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된 제 212대 로마황제 카라칼라의 안토니누스 칙령 파피루스 사본(AD 212) (Caracalla, Edict of Constitutio Antoniniana, 소장: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대학도서관) 카라칼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베루스 안토니누스(AD 186-217 제위) 황제의 별명으로서 켈트족의 전통 모자를 뜻한다. 이 칙령으로 인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개 대륙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단일한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시민권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로마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하나님을 향한 눈' 주화(AD 328-9) 황제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였고, 자신의 취임 15주년을 기념하였다. 동시대의 초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황제가 제국의 금화에 자신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새겨넣게 한 것은 그의 영혼이 신성한 믿음의 능력에 얼마나 깊이 감명받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고 진술하였다. 정면에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CONSTANTINVS AVGV)라고 새겼다. 뒷면에 두 개의 파수대 사이에 별을 새겼고, 둘레에 아우구스투스의 예지(PROVIDENTIAE AVGV)라고 썼으며, 밑에 주조 마크(?)인 SMKB를 새겼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성벽과 열린 성문을 통해서 제국의 안녕과 개방을 홍보하였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하나님의 손' 주화(AD 337-340) 하나님의 손(Manus Dei) 주화는 황제가 사망한 직후에 안티옥에서 제조되었다. 정면에 베일을 쓴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신성한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DV CONSTANTINVS PT AVGV)라고 새겼다. 뒷면에 전사를 탄 황제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모습을 새겼다. 밑에 새긴 SMANNA는 주조마크이다.

● AD 392년 그리스도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만든 사람은 테오도시우스 대제였다.

●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힘은 주후 392년에도 발휘되어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대제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하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그리스도교는 유럽의 국교 자리를 유지하

였다.

- 스페인 사람 이냐시오 데 로올라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및 다른 5명의 동료에 의해서 1534년 8월 15일 창설된 가톨릭교회의 예수회는 인도(1541년), 일본(1549년), 중국(1583년), 중남미 대륙(1492년 신대륙발견이후)을 복음으로 휩쓸었다. 1583년 10월에 마테오리치가 중국 광둥(마카오, 자오칭에서 사역 시작)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릴 때 승복으로 갈아입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나중에 그는 사대부를 공략하기 위해서 사대부 복장으로 전도하였다. 상류지식층에서 하류층으로 복음이 전도되게 하려는 방식을 취했던 것인데 성공적이었다.



테오도시우스 대제의 금화(주후 393-395년경)  
 앞면에 "우리의 주 테오도시우스, 가장 높고 위대한 황제" (DN THEODOSIVS PF AVG)라고 썼고, 뒷면에 테오도시우스가 오른손에 권기, 왼손에 지구위에 선 여신 승리를 불러놓고 포로를 밟고 선 모습을 새겼으며, "신성한 도금관청에 의한 금화" (VICTORIA AVGGVSTI COMOB)이라고 썼다.

- 조선시대 가톨릭신자들은 정치기반이 약한 남인 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집권세력인 북인 벽파들은 이들 남인 시파의 씨를 말리려 한 사람들이었다.
- 네로의 부인 폼페이아가 유대교 하나님 경외자여서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다소 유리한 입장이었듯이, **홍선대원군(이하응)**의 부인 **민씨 여흥부대부인**이 가톨릭신자였기 때문에 프랑스 신부들이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수천여 명의 가톨릭신자들이 대원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다.
- 1860년 베이징조약체결의 결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였고,
- 1864년에는 함경도 경흥지방 관청(경흥부)을 찾아와 통상을 요구하였다. 이 통상요구로 대원군을 비롯한 조정대신들은 러시아의 남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대원군은 베르뇌 주교(조선교구 제4대 주교)에게 사람을 보내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주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그러나 베르뇌 주교는 러시아와는 나라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 그 후 베르뇌와 다블뤼 신부가 한양에 입성하였으나 이미 상황이 바뀐 뒤였다. 우려했던 러시아의 남진은 없었고, 베이징조약으로 영국에게 홍콩을 빼앗겼고,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넘겼으며, 프랑스에게 가톨릭선교를 허락한 청나라가 도리어 가톨릭을 탄압하는 쪽으로 선회하자,
- 조선조정의 안팎에서도 가톨릭을 탄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대원군은 1866년 봄에 박해를 재가하였고, 이것을 빌미로 늦가을에 프랑스함대 7척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프랑스 신부를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 이 일로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강화하였고, 병인박해(1866)를 시작으로 기묘박해(1879) 때까지 수천 명의 신자들을 용산 새남터와 양화진 잠두봉에서 참수케 하여 한강을 피로 물들였다.
-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대원군은 가톨릭신앙을 묵인하고 있었다.
- 만일 대원군이 가톨릭신앙을 받아드리는 상황이 벌어졌더라면 역사는 달리 쓰였을 것이다.
-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디모데전서 2장 5-7절은 바울 당대에 종교적으로 논란이 매우 큰 주장이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으나 뛰어난 영성이 낳은 위대한 선포였다(바울은 자신이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세상의 도래 곧 낙관적 후천년’을 선포하는 선구자와 메신저임을 밝힘).
- 첫 번째 논란과 위험은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에 있다.
- 3만이 넘는 신들을 믿었던 당대의 사람들이 “신은 한분뿐이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보면 단박에 짐작할 수 있다.
- “신은 한 분뿐이다.”는 주장은 로마제국 전역에 세워진 각종 신상들과 신전들 및 제단들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황제가 신성, 신의 아들, 신의 현현이라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황제(아우구스투스)를 섬겨야 하는 로마군에 입대를 거부하다가 참수당한 사례들이 있었다.
- 당대의 그리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다신교를 믿지 않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비난하였고 이는 결국 대 박해로 이어졌다.
- 두 번째 논란과 위험은 5-6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에 있다.
- 유대인들에게는 이 주장이 모세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찬탈하는 행위로 보였을 것이고,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는 황제의 권위를 찬탈하는 행위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였고, 신성을 지닌 신의 아들이었으며 신의 현현이었다. 또 아우구스투스는 백성에게 평화(pax)와 행복(felicitas)을 가져다주는 구세주였다.
- 그러므로 IXTHUS (이크투스) 곧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황제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었으나 위대한 영성이 낳은 선포였다.
- 세 번째 논란과 위험은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에 있다.
-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세상의 도래 곧 낙관적 후천년’을 선포하는 선구자와 메신저임을 밝혔다.
- 유대교인들이나 유대교적 그리스도인 에비온파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거짓 사도라고 했고,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라고 생각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들로부터 여러 차례 린치를 당하였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 바울은 1장 18절에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 싸우라”고 하면서 19절에서 그 무기로써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한 바가 있다.
- 2장 1-2절의 권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선한 싸움의 또 다른 무기를 언급한 것이다.
- 믿음과 착한 양심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이다.
- 이 싸움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 그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획득해야 한다(오늘날에는 많이 상실함).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획득해야 한다.
- 그들을 이기고 그들의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는 힘은 칼날에 있지 않고 기도의 날에 있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다.
-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우상들을 의지하거나 칼날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자 그 이상의 승리자들이 된 사람들이다.

#### 결론(딤후 2:1-7)

-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이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세상의 도래 곧 낙관적 후천년’을 선포하는 선구자(harbinger)와 메신저(messenger)임을 자처했다.
-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세상의 선구자와 메신저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우상들을 의지하거나 칼날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자 그 이상의 승리자들이 되었다.
- 18세기 말 19세기 미합중국의 건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신약성경교회의 순수성과 본래성과 그 능력을 회복하자는 환원운동이 이런 믿음으로 전개되었고 위대한 성공을 거뒀다.